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Erikson이 주창한 자아정체감에 대한 지금까지 보고된 실증적인 연구들 가운데 특히, 남녀간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몇 가지 연구들의 결과를 고찰하면서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를 탐색하여 현대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의 주요한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성'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보다 주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되어 이 '관계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E. H. Erikson(1963)에 의해 제창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유아기 이후 형성되어 온 다양한 동일시나 자아상이 청년기에 취사선택되어 재구성됨으로서 성립하는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진 자아의 확립상태를 말한다. 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두 가지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하나는 '발달적 위기'는 남녀관계없이 동일한 계열에 있으며, 각 단계의 해결에 관련된 자아의 강도(ego-strengths) 역시 남녀 구별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달에 있어서 3가지 상호작용 요소들

즉, 신체적인 측면(soma), 심리적인 측면(psyche), 및 사회문화적 내용(polis)이 각 단계의 위기에 직면할 때,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는 해결과 통합을 이룬다고 본 가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나 정체감의 감정은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아청, 1995; Meeus 등, 1999). W. Meeus 등(1999)은 최근 수년간 정체감 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정체감 발달의 양상이

성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Erikson은 앞에서 언급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상호작용 요소들 가운데 신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그들의 신체적 설계가 '내적 공간(inner space)'을 숨겨주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많은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면서도 남성의 정체감과 구별하여 여성의 정체감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Erikson, 1968). 그는 여성의 정체감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성이 갖고 있는 특유한 신체구조인 자궁에 관심을 갖고 '내적 공간'을 제창하였던 것이다. 여성의 신체에는 자신이 선택한 남성의 아이를 잉태하는 '내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을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 후 신체구조에서 성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예컨대, Carlson, 1972; Gilligan, 1979 등)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여성의 특유한 신체구조에 근거를 둔 Erikson의 '내적 공간' 설을 근거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남녀간의 차이를 설명할 때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남성에게 비해 보다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성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는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의 질, 즉 '관계성(relatedness)'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자청년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때 타인간에 다양한 '관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실증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R. Josselson(1973)은 48명의 34개 여자 대학교 상급생

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남성의 정체감이 학위나 경제적 성공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확고하게 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비해 여성의 자아정체감은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는 청소년기의 여자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초자아, 즉 내면화된 부모의 제한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를 받는 자아의 양식에 상관되어 있는 점이 남성과 다르다고 보았다.

또 C. Gilligan(1982)은 남녀에 있어서 도덕관과 정체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분리와 애착이라는 2가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분리란 자기를 세계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보고, 타인이나 세계로부터 자립을 추구하는 모습을 말한다. 한편, 애착이란 자기를 세계와의 관계로 보아 타인과 상호 의존한 것으로 경험하는 모습을 말한다. 그리하여 여성에 있어서는 애착의 측면이 우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발표된 정체감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발달이론에서 재분석한 D. Michael과 G. R. Adams(1999)는 종래의 정체감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정체감 발달을 고찰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남녀간의 발달 양상을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보려는 견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Josselson(1973, 1987), Gilligan (1982)를 비롯하여 D. Michael과 G. R. Adams(1999)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정체감이란 타인(특히 부모)으로부터의 분리나 자율에 의해 확립되는 것을 강조한 연구자들에게 정체감의 발달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립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최근 P. Cramer(2000)는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정체감 발달 양상을 조사한 결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정(self-monitoring)' 및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의 영역에서 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여성의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검토하고, 이 특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아 여성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체감 형성에서 나타난 성별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 발달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는 '관계성'에 대한 관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정체감을 파악하기 위해 종래 사용해 온 방법에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Marcia, 1966).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J. E.

Marcia가 고안한 '정체감 지위면접법'이다. 이 면접법은 청년이 직업이나 정치, 종교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선택하는가(하려고 하는가)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정체감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면접에서 직업, 정치,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남성에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Marcia의 면접법을 활용한 연구로는 김영석, 배제현, 백미정(1982)이 실시한 대학생에 대한 정체감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녀학생의 영역을 구별하여 조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남학생들에게는 군복무 경험을 다루었고, 여학생에게는 대학 입학동기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면접의 내용을 이데올로기에는 정치영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치관을 포함시킴으로 남녀의 구별이 없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여성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정체감 하위 영역으로 다양한 영역을 추가한 연구들을 정리한

표 1 여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된 영역

영역	제안자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	Marcia & Friedman(1970), Waterman & Navid(1977)
성역할	Mattson(1977), 장재정(1988)
배우자역할	Whitbourne(1986), DeGenova(1993), 이경혜(1997)
대인관계(우정, 데이트, 성역할)	Grotevant 등(1982), 김형태(1989), 신태수(1986)
대인관계(자기조정, 자아탄력성)	Cramer(2000)
가정역할(양육역할, 가정과 커리어갈등 등)	Bell(1985), Steinber & Silverberg(1987)
	Archer(1989, 1992), 신태수(1986), 이경혜(1997), 정종권(1998)

<표1>에서 보듯이 관계성의 문제를 반영하는 영역을 추가하여 여성의 정체감의 특징을 해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수행된 일련의 연구에 의해 남성의 정체감에 있어서는 직업 등의 '개인적 영역(*intrapersonal domain*)', 여성에 있어서는 성역할 등의 '대인적 관계 영역(*interpersonal domain*)'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2분법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증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도식을 지지하는 것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지지하는 연구로서는 예컨대, J. W. Hodgson과 J. L. Fischer (1979)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남성은 직업, 정치, 종교의 영역에서 정체감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여성은 혼전 성교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영역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종교, 정치 및 혼전성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A. S. Waterman과 J. S. Navid(1977)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성의 쪽이 남성에 비해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성숙도가 높고, 또 갈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신태수(1986)는 남녀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수용 등에 대한 면접조사결과를 자아정체감 발달수준과 비교해 본 결과, 대인역할 기대와 대인관계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 송설희(1994)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관에서는 남녀간 정체감 발달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직업관이나 정치관 그리고 철학적 생활방식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그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적응과 역할과의 관계를 규명한 정종권(1998)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영역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자아정체감 형성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영역을 2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

한편, 성차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한결같게 나오지 않았던 것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어났다. 대인관계 영역은 정말로 여성에게만 유효한 것인가? 영역을 구별하여 남성과 여성의 상이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분명히 Erikson의 내적 공간설이 제시된 1960년 전반기까지는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life-style*)이 일반적이었고, 양자의 생활 공간은 어느 정도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난 결과,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직업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고, 영역의 구분은 점차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S. L. Archer(1992)는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가한 연구자였다. 그녀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의 유효성과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것과 함께 그녀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주장은 흥미로운 것이다. 즉, 관제성은 여성만 가진 특성이 아니라 정체감 그것이 본래 관계 가운데에서 발달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란 점이다. 청년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단절한 상태에서 정체감을 형성할 수가 없다. 개인내 영역이라고 일컫는 직업, 정치, 종교에 있어

서의 이데올로기의 결정조차도 타자의 의견이나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이고, 타자와의 관계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인관계영역이 남자청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Thorbecke & Grotevant, 1982; 신태수, 1986; 이경혜, 1997; 정종권, 1998).

새로운 접근

관계성의 관점에서 정체감 형성을 재고하려 하면 성별간의 차이는 영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녀 양쪽을 관계성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점을 전환하면 만일 성별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체감이 형성될 때 관계성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른 정도나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W. Thorbecke와 H. D. Grotevant (1982)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남성은 타인에게 이기려는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정체감의 획득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이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은 러한 결과는 남성의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는 관계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계성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은 타인과의 경쟁, 여성은 애착과 친화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관계성 가운데서도 중요한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관계성'을 주요한 관점으로 하면서도 그 초점은 관계성보다도 본질적인 내용으로

옮겨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초점의 이행은 Erikson의 발달이론을 주의 깊게 검토해보면 결코 특이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어떠한 발달의 시기에 있어서도 개인이 타인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성격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Erikson, 1963). 그러므로 분리나 자율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서구적인 남성우위의 개인주의 때문에 서구의 정체감 연구자들이 이 이론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 측면을 간과해왔다고 하는 Marcia(1993)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K. Sugimura (1997)의 연구는 이 방면에서 매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관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Erikson (1968)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감각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에 의해서도 그 동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회적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박아청, 1996).

Sugimura(1997)는 이 점에 착안하여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을 의식하고 이것을 중요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입장을 내재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또 그 과정의 도상에서는 자기와 타인의 관점간에 차이를 체험하고, 그것을 상호조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6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적인 면접조사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때, ①타인과의 관계성을 전혀 갖지 않은 수준, ②이상화한 타인과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거나(타인의 입장이 우위에 있는), 타인의 심리적 지원이나 정보를 이용하는(자기와 타인의 양쪽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는) 수

준, ③자기와 타인간의 입장을 차이를 체험하고, 이것을 상호조정(monitoring)하여 해결하는 수준으로 크게 3가지의 관계성 수준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여자청년 가운데 한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피험자는 청년기 전기에는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모델로 하였지만(수준②), 청년기후기가 되어 어머니의 삶의 모습에 의문을 느끼고(어머니와 자신의 입장간의 차이), 그것을 상호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수준③). 그리하여 이 수준②에서 ③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구조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의 타인을 의식하는 구조로, 관계성의 배치가 재구축된 것이었다.

여자청년에 있어서는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기원으로 하는 관계성의 경계 밖으로 자기 자신을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분리되는가 하는 것이 자아정체감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Josselson, 1987; 정종권, 1998).

Sugimura(1997)는 여자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시킴으로 정체감의 형성에서 남녀

간의 차이나 여성의 독자성이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관계성을 규정하는 요인

여성의 정체감에서 왜 관계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성역할관이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는 인간관계는 여성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왔다(Dolin, 1995)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스스로의 삶의 방식(life style)이나 이데올로기를 선택, 결정할 때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왔던 것이다(Côté, 1996; Kaminer, 1994; McAdams & Aubin, 1992).

그런데 동양에서도 역시 남성은 타인으로부터 분리나 자율을, 여성은 타인과의 관련을 주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사회화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남녀간의 나타나는 방향성의 차이는 미국의 경우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김명자, 1994; 이경혜, 1997; 이차선, 1999)이나 일본

표 2 자녀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국제비교(%)

	사회적신용		경제적안정		좋은 심성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공헌		개성, 취미		본인의 의사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한 국	15	32	2	6	5	7	26	22	3	7	24	21	30	32
일 본	7	30	11	13	40	28	43	27	4	10	13	12	16	21
필립핀	29	37	17	21	26	27	39	37	4	4	20	17	14	12
미 국	20	23	5	8	32	28	6	6	5	6	28	28	15	16
프랑스	13	17	15	17	7	7	10	11	6	6	26	28	29	28
독 일	6	8	5	9	33	35	11	11	4	5	23	26	28	26
스웨덴	17	19	8	10	25	28	26	29	7	8	28	31	40	42

출처: 井上輝子, 江原田美子(1995), p.54.

(秋山弘子, 1997)의 경우, 개인보다도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서구의 나라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성별사회화는 이미 아동시절부터 강하게 이루어져 여성의 심리발달에 중핵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표2>에서 보듯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여성에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부모의 비율이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나 일본의 여성은 관계성에 대한 기대를 '이중으로' 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井上輝子, 江原田美子, 1995).

이상과 같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관은 관계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그 규정 방식은 문화에 의해 한층 다양성을 띄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 한국이나 일본의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점차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여성의 삶의 방식에는 전통적인 가정의 처,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업 등의 가정 외의 역할이라고 하는 복수의 기반을 자아정체감 가운데 갖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김영옥, 1993; 양승주, 1993; 이경혜, 1995, 1997; DeGenova, 1993; Dolin, 1995; Kaminer, 1994).

예컨대,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45세 전후였고, 22세를 중심으로 결혼하였으며, 23, 24세에 장남을 출산하고 넷 정도의 자식을 출산하였던 관계로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40대 초반을 지났다. 그러기에 여성은 가사와 육아에 일생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전반부터 평균 수명도 70세를 육박하게 되고, 평균 출산도 둘로 줄어짐에 따라

35세 전후에 막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되었다(김명자, 1994).

그러므로 종래의 인생기간에 비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만큼 평생주기(life-cycle)에 변화가 온 것이다. 결론과 육아가 인생의 설계에서 중심을 이루던 시대가 지난 셈이다(박아청, 1984b).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운동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정체감 형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 역사적 흐름도 여성의 정체감 확립에 영향을 준 것이었다. Kaminer(1994)에 의하면 여성운동을 통하여 많은 미국 여성은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의 아이덴티티는 확고하게 되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정생활의 운영과 사회생활에서의 역할간의 갈등도 한층 심화되어 가고 있다"(p.4)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그림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오늘날 여성은 다양한 자아정체감의 발달 모습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의 여자 청년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때, 그 기반을 어디에 두는가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성역할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관계성의 의미는 전통적인 규범에 의해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적인 교류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간관계의 양상에 커다란 변환기를 맞은 이른바 중년기 위기시에 나타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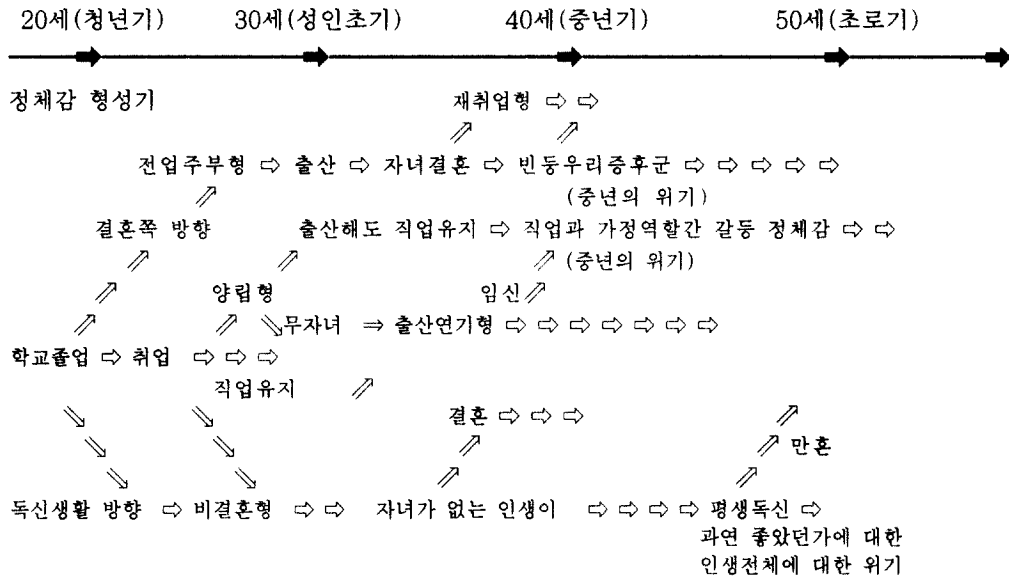


그림 1 현대여성의 삶의 코스

에 비해 각 발달단계에서 맞는 인간관계의 변화에 자아정체감의 양상이 영향을 쉽게 받는 사실(이경혜, 1997)을 염두에 두고 각 발달단계에 따른 정체감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또 관계성의 배치를 구성하는 핵심도 여성의 생활공간이 넓어짐과 함께 다양한 장면이나 타인을 포함하는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인 것이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양승주, 1993).

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결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동과 함께 유연하게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는 입장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Côté, 1996). 그러므로 여자 청년의 자아정체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의 의미도 사회변동과 함께 변화해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체

감을 여성 나름의 독자적인 것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결론으로 우리는 정체감 연구에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성'의 차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는 여성 특유의 자아정체감 발달 성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체감 형성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정체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종래의 자아정체감 검사에도 그 정체감 측정의 하위영역에는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 측면을 하위영역 가운데 핵심적인 영역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검사도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여성의 관계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체감 연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자녀양육과 부부생활에 관한 것뿐이었다. 이제는 여성의 가정생활에서의 부부, 자녀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 친우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폭넓게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이나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내적 변인들 뿐 아니라 직업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서 파생하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정체감 연구는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발달단계에서 형성하는 인간관계의 양상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아정체감의 양상이 각 발달단계(인생과정)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로부터 받는 영향이 비교적 큰 사실(이경혜, 1997)에 기초하여 각 발달단계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자(1994). **중년기의 연구**. 서울: 교문사.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a).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아청(1984b). **변모하는 한국 중년여성의 생활 스타일의 모색**. **계간성인연구**, 제2권 제2호,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46-60.
- 박아청(1990). **Erikson의 성격발달이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계명행동과학**, 제3권 제2호, 계명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16.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서울: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6).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지와 창의성의 심리학(581- 609)**, 김재은 교수정년기념논문집, 서울: 창지사.
- 김영석, 배제현, 백미정(1982). **한국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형성에 관한 연구**. **제7회 전국대학생학술연구발표대회 논문집**, 21-45.
-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여성연구원, 제11권 제3호, 133-156.
- 이경혜(1995). **성인여성의 정체감 발달에서 나타나는 위기의식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16집, 한국교육학회 대구경부지회, 64-76.
- 이경혜(1997).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차선(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정(1988).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종권(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秋山弘子(1997). 젠더와 문화-男性と女性の社會的ネットワーク. 柏木恵子, 北山忍, 東洋(편), *文化心理學-理論と實證*, 東京大學出版會, 220-233.
- 井上輝子, 江原由美子(1995). *女性のアータブック-性, からだから政治參與まで*(第2版). 東京: 有斐閣.
- Archer, S. L.(1989). Gender differences in identity development: Issues of process, domain and timing. *Journal of Adolescence*, 12, 117-138.
- Archer, S. L.(1992). A feminist's approach to identity research. In G. R. Adams, T. P. Gullotta, & R. Montemayor(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Vol. 4.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pp.25-49), New Park, CA: Sage.
- Bell, J.(1985).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less, and empty-nest men and women. *Lifestyles*, 7(3), 549-558.
- Carlson, R.(1972). Understanding wome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17-32.
- Côté, J. E.(199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identity formation: The cultureidentity link and identity capital. *Journal of Adolescence*, 19, 417-428.
- Cramer, P.(2000). Development of Identity: Gender Makes a Dif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4, No. 1, 42-72.
- DeGenova, M. K.(1993). Reflections of the past: New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Educational-Gerontology*, 19(3), 191-201.
- Dolin, T.(1995). Fictional territory and a woman's place: regional and sexual difference in 'Shirley.' *ELH*, Spring,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illigan, C.(1979). Women's place in man's life cycl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9(4), 431-446.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tevant, H. D., Thorbecke, W., & Meyer, M. L.(1982). An extension of Marcia's Identity Status Interview into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33-47.
- Hodgson, J. W., & Fisher, J. L.(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37-50.
- Josselson, R.(1973). Psychodynamics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3-52.
- Josselson, R.(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Jossey-Bass.
- Kaminer, W.(1994). Whither feminism? Feminism's identity crisis. *Current*, Jan 1994, Helen

- Dwight Reid Educational Foundation, , 4-12.
- Marcia, J. E.(1993). The relational roots of identity. In J. Kroger(Ed.), *Discussions on ego identity*(pp.101-12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arcia, J. E., & Friedman, M. L.(1970).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38**, 249-263.
- Matteson, D. R.(1977). Exploration and commitment: Sex differences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use of identity status categ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 353-374.
- McAdams, D. P., & Aubin, E. S.(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62**, 1003-1015.
- Meeus, W., Iedema, J., Helson, M., & Vollbergh, W.(1999). Pattern of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Review of Literature and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Vol. 19, No. 4, 419-461.
- Michael. D., & Adams, J.(1999). Reevaluating the Identity Status Paradigm: Still Useful after 35 Years. *Developmental Review*, Vol. 19, No. 4, 557-590.
- Steinberg, L., & Silverberg, S. B.(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2**, 751-760.
- Sugimura, K(1997). A preliminary study on identity exploration among female adolescents from a viewpoint of relatedness. *Journal of Iigakuizumi University*, **32**, 305-313.
- Thorbecke, W., & Grotevant, H. D.(1982).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interpersonal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79-492.
- Waterman, A. S., & Navid, J. S.(1977). Sex Differences in the Desolution of the Identity Cri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 337-342.
- Whitbourne, S. K.(1993). *The Me I Know: A Study of Adult Identity*. New York: Spriner-Verlag.

A new approach for ego-identity formation in Women

Park, Ah-Chung

Dep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approach to female ego-identity formation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support of Eriksons claims on ego-identity. Especially those previous studies which emphasized on sex differences were examined to ascertain some characteristics in the female ego-identity formation and to identify major factors for these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relationship" which determines the quality of human relation has greater influence on women and on men in the ego-identity formation; hence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is focused on "relationship." Based on this "relationship," a new approach to female ego-identity formation process is presented in this study.